

제56.3호

행정 명령

**뉴욕주 내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한 브롱크스, 뉴욕 및 인접 카운티에서의 재난 비상사태 선언 연장**

브롱크스와 뉴욕 카운티에서 간호 인력의 파업으로 인해 주 내 여러 병원이 심각한 인력 부족란을 겪고 있으며, 이로 인해 진료의 가용성과 제공이 영향을 받고, 공중보건 및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, 특히 호흡기 바이러스가 여전히 널리 퍼져 있는 시기에 취약 계층을 포함한 중증 치료 제공 능력이 저해되고 있기 때문에,

공중보건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, 2026년 1월 9일에 본인은 브롱크스, 나소, 뉴욕 및 인접 카운티에 재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행정명령 제56호를 발령했기 때문에,

행정명령 제56호의 조건, 조항 및 유예는 진료의 연속성과 환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임시 조치이며, 단체교섭에서 어느 일방에게도 유리한 지위를 제공하려는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,

이에 따라 본인 KATHY HOCHUL 뉴욕주 주지사는 뉴욕주 헌법 및 행정법 제2-B조 28항에 따라 본인에게 부여한 권한에 의거, 브롱크스 및 뉴욕 카운티에 걸친 재난 비상 명령의 지속적인 필요성을 확인하며, 행정명령 제56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주 재난 비상 사태를 연장하고, 브롱크스, 뉴욕 및 인접 카운티에 적용된 바와 같이 행정명령 제56호에 포함된 약관, 조건 및 정지 조항을 2026년 2월 4일까지 계속합니다.

본 재난 비상사태 선언은 이천이십육년 이월  
이일 올버니 시에서 본인이 서명하고  
날인했습니다.

주지사

주지사 비서관